

MONTHLY REPORT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2. 12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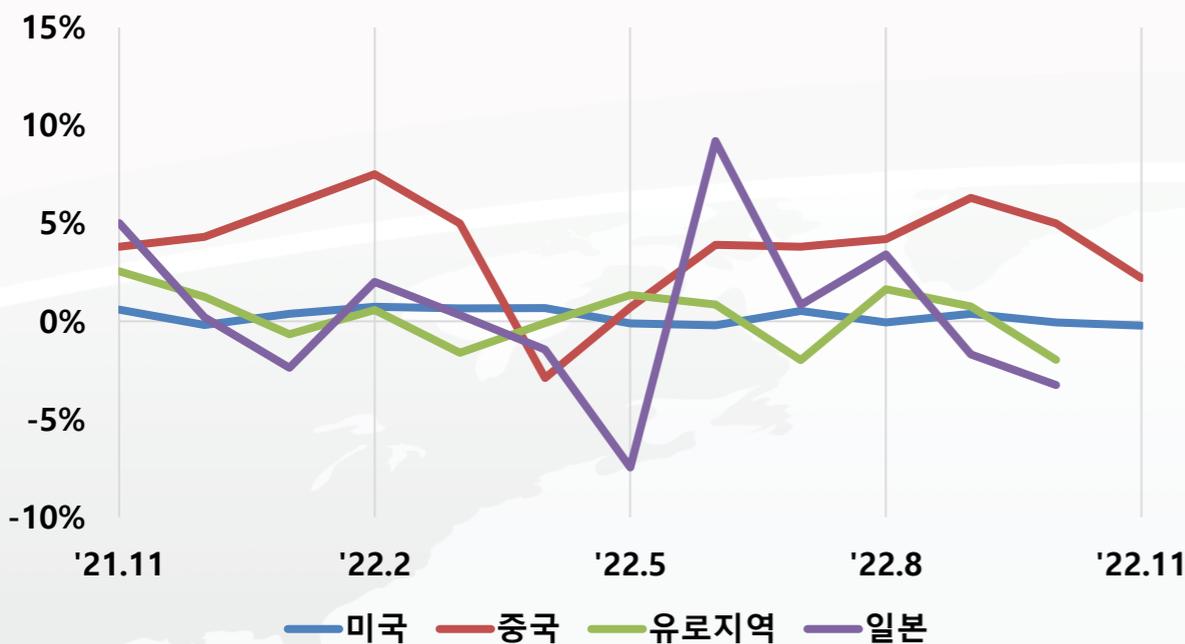
 Korea Eximbank
WE FINANCE GLOBAL KOREA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글로벌 경제 둔화 심화, 미 물가상승 압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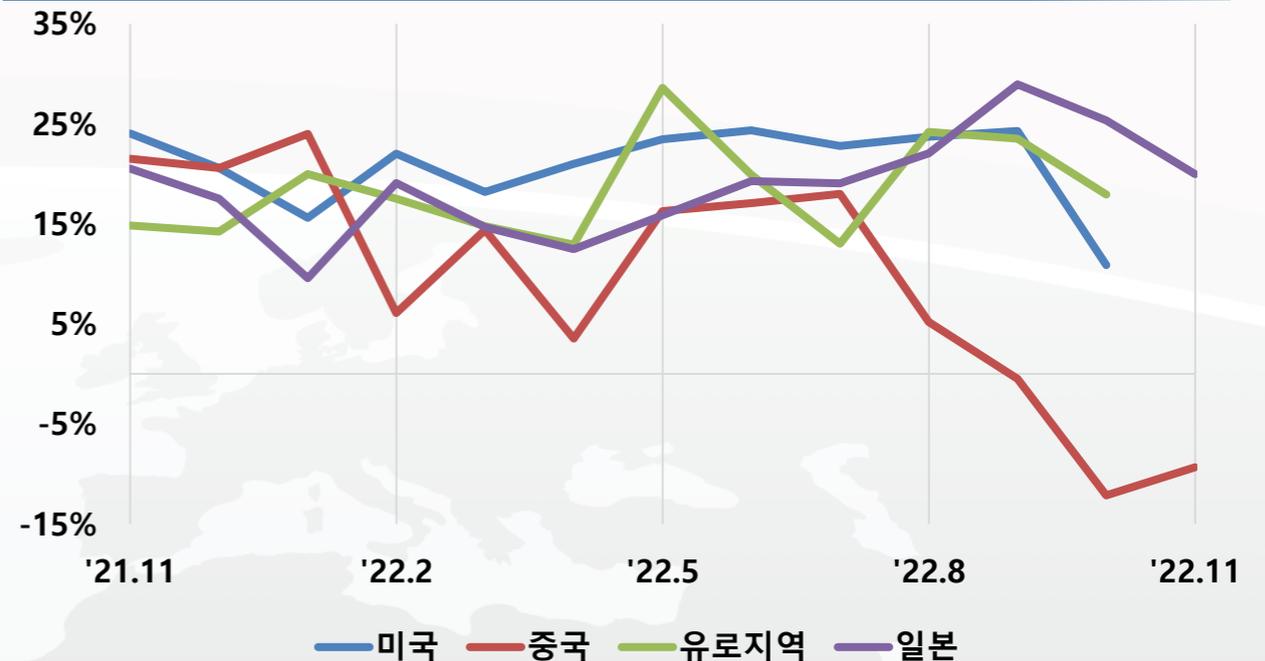
- **(미국)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및 산업생산 부진, 고용시장은 견조세 유지**
 - 11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.2%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위축, 11월 실업률 3.7%로 전월과 동일, 비농업부문 취업자 26.3만명 증가
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 대비 +7.1%로 전월(+7.7%) 및 예상치(+7.3%) 하회,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6.0%
- **(중국) 11월 봉쇄 지역 확대로 생산 및 소비 부진 지속, 대외여건 악화 및 생산 차질로 수출 감소**
 -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2.2%(전년동월 대비)로 하락하고, 소매판매은 전년동월 대비 5.9%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세 확대
 - 1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.3%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역성장, PMI 지수(47.1)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(50) 하회
- **(유로존) 생산 및 소비 위축 지속,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폭 하락**
 - 10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2.0% 감소, 소매판매 1.8% 감소 등 러우 전쟁 및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하락세 심화
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+10.0%로 전월대비 하락했으나 두 자릿대의 상승률 유지
- **(일본) 생산 및 소비 부진 확대, 소비자 물가 상승세 유지**
 - 10월 산업생산(전기 대비 △3.2%) 2개월 연속 감소, 소매판매 증가율(+0.2%) 하락, 소비자물가 상승률 +3.7%로 상승폭 확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 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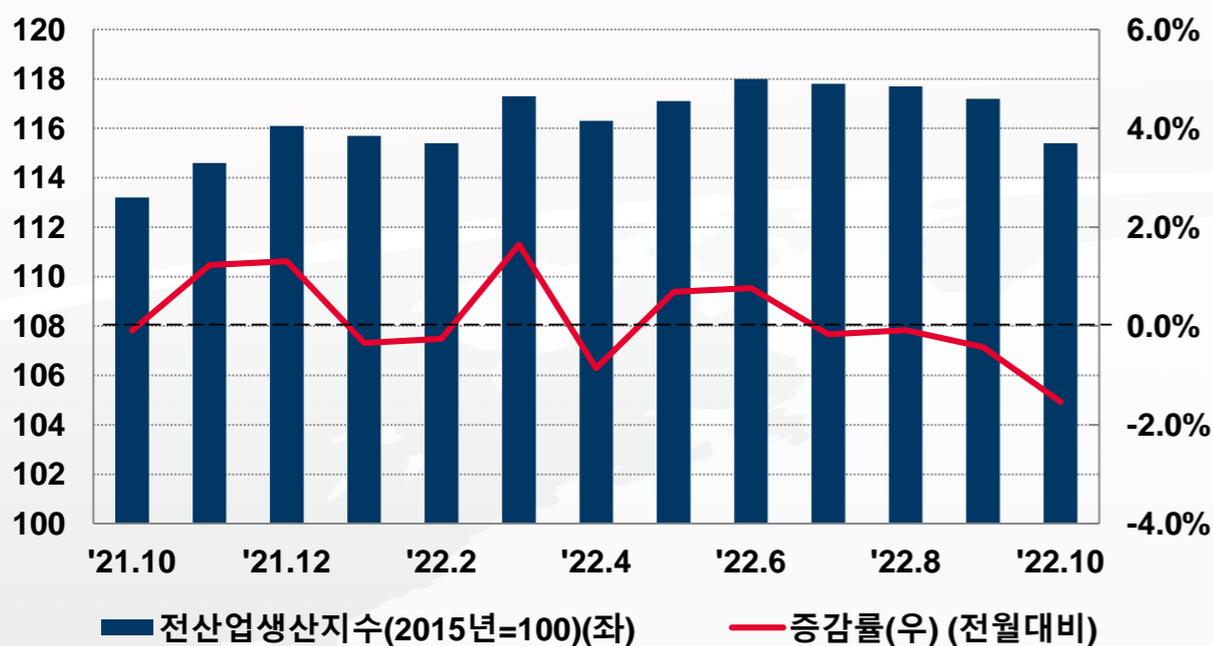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감소, 경기 선행종합지수도 하락

- (생산)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.5% 감소
 - (광공업 : $\Delta 3.5\%$) : 기타운송장비(+5.5%) 등에서 늘었으나, 자동차($\Delta 7.3\%$), 기계장비($\Delta 7.9\%$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$\Delta 0.8\%$) : 보건·사회복지(+0.3%) 등에서 늘었으나, 금융·보험($\Delta 1.4\%$), 정보통신($\Delta 2.2\%$) 등에서 감소
- (경기) 10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9.2p)는 건설수주액, 코스피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.1P 하락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글로벌 경기 둔화, 중국 성장 부진 등으로 수출 감소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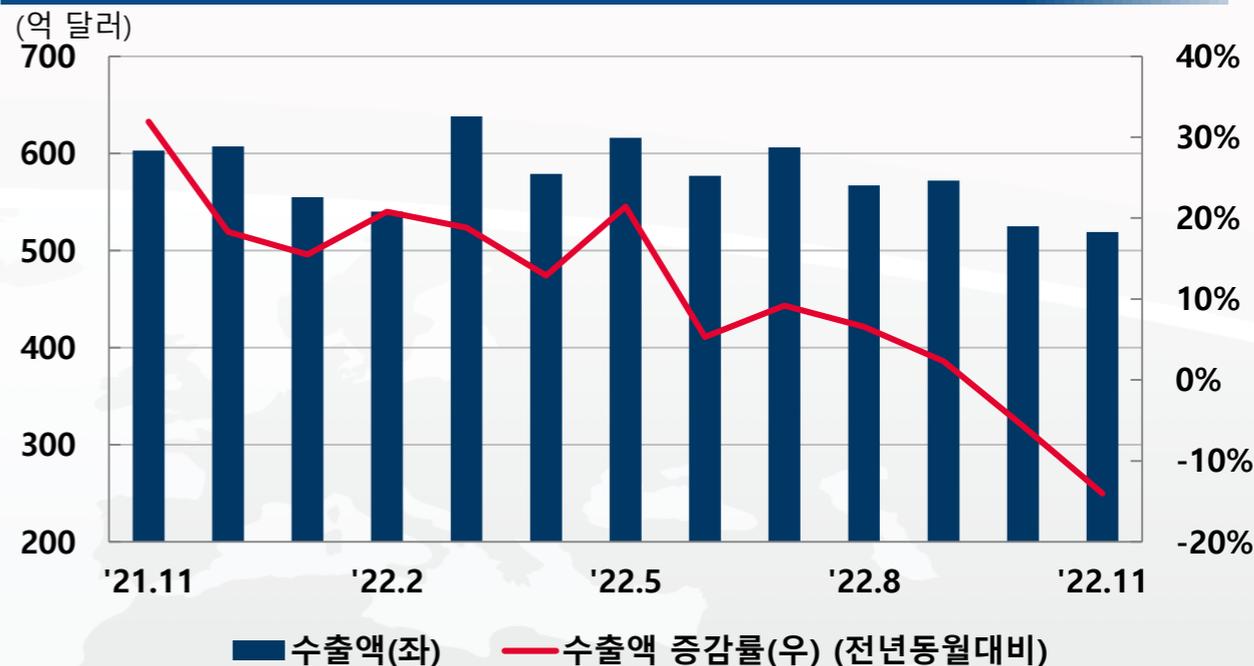
- 11월 총수출은 519.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14.0\%$),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($\Delta 70.1$ 억 달러) 적자 지속
 - 미국·중동·EU 수출은 증가,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중국($\Delta 25.5\%$), 아세안($\Delta 13.9\%$), 일본($\Delta 17.8\%$) 등은 감소
 - 자동차(+31.0%), 석유제품(+26.0%) 등은 증가 지속, 반도체 가격 하락 및 경기 둔화로 반도체($\Delta 29.8\%$), 석유화학($\Delta 26.5\%$) 등은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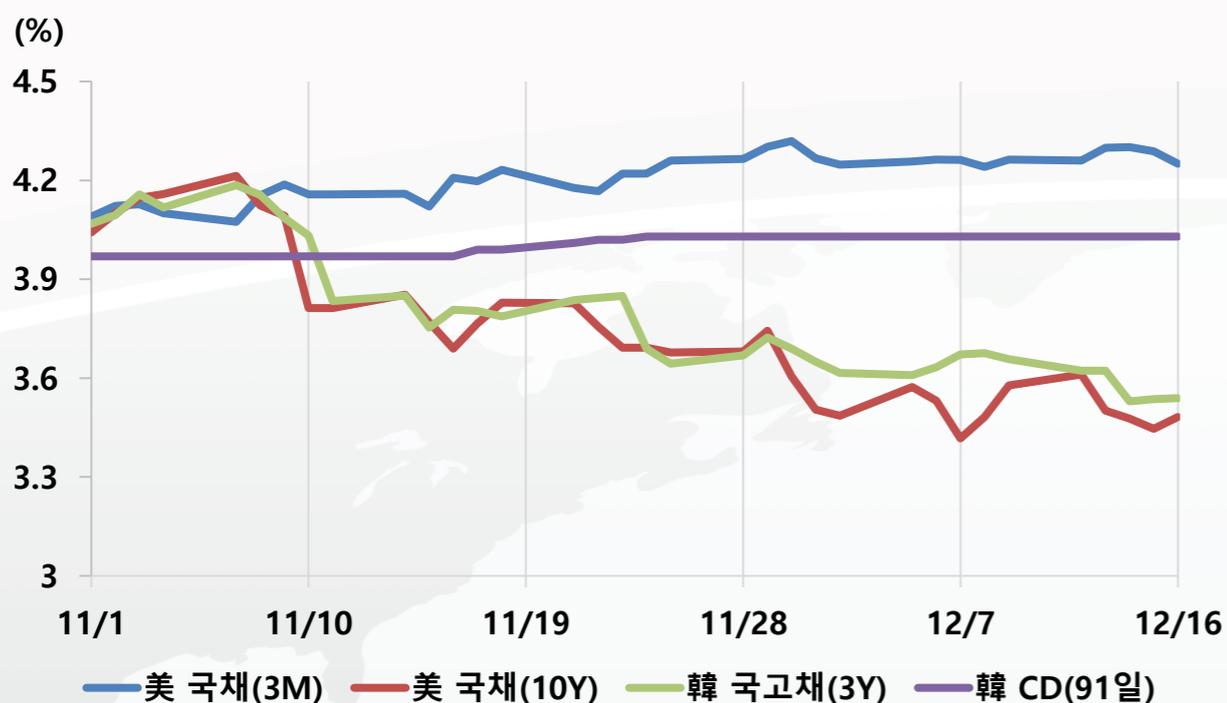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, 경기둔화세 등으로 장기물 금리 하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큰 폭 하락 및 경기지표의 부진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3.4%(12.7)를 기록한 이후 미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'23년중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로 소폭 반등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 금리 하락,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3.5%(12.14)로 하락, 단기물(CD91물)은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4.0%대로 소폭 상승

■ 환율 : 원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약세 전환 및 일본은행의 정책기조 변화로 급락

- (원/달러 환율) 11월초 미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1,319원/달러(11.11) 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1,300~1,350원/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다 엔화강세의 영향을 1,290원/달러대로 하락
- (엔/달러 환율) 11월중 미금리 하락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 및 일본정부의 시장 개입,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등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으로 135엔/달러 이하로 급락(132엔/달러, 12.20)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유가는 경기침체 우려 지속으로 하락, 천연가스 가격은 EU의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로 하락

- (원유) 미국 경제지표 부진,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 확대로 유가 하락, 12월 중순 배럴당 76달러 수준(12.16, 두바이유 \$76.4/bbl)으로 9월말 이후 최저치 기록
 - 미국의 11월 생산 및 소매판매 전월대비 감소,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 하락 등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미달러화 약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확대
- (천연가스) 12월중 미국 동절기 수요 증가 전망, EU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부진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mmBtu당 7달러대에 육박했으나, 가격상한제 합의 도출로 5달러 수준(12.20)으로 급락
 - 미국의 재고 및 천연가스 광구수 감소와 낮은 기온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기대 확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, EU가 가스 가격상한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급락세로 반전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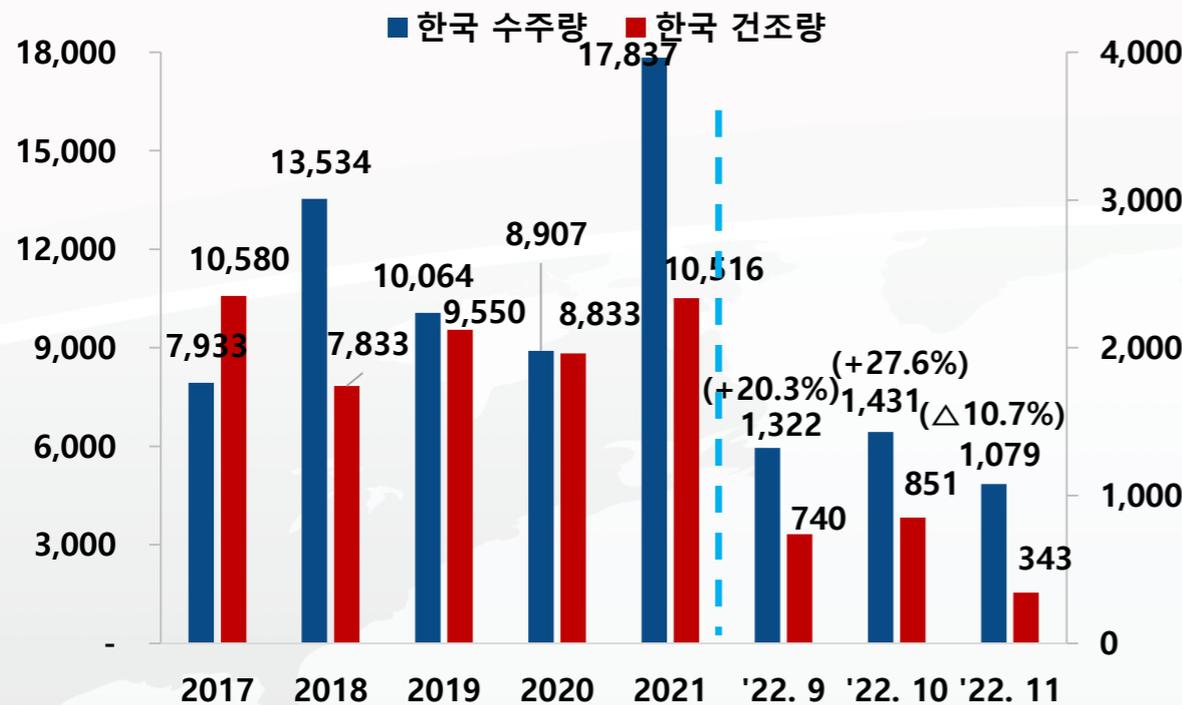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11월 세계 발주량은 다소 부진했으나, 한국 수주량은 비교적 양호

- 11월, 세계 신조선 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300만CGT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부진한 수준
 - 11월 세계발주량은 286만CGT(전년동월 대비 +9.1%), 11월 누적 발주량은 3,911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23.3%)
 - 11월 한국 수주량은 108만CGT(전년동월 대비 △10.7%), 누적 수주량은 1,575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8.7%)
 - 11월 한국 수주액은 28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5.6%), 누적 수주액은 418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2.9%)
 - 11월에는 벌크선, 탱커 등 발주 선종이 점차 다양화 되며 중국이 54.5%의 높은 점유율 기록
 - 11월 한국 수주는 LPG선과 탱커 등으로 다소 다양화 되었으나 여전히 LNG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
- 11월 선박 수출은 일감 부족으로 전월에 이어 부진한 실적 지속
 - 11월 수출액은 11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68.2%), 11월 누적치는 127.9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26.8%)
 - '20년 수주 부진의 여파로 일감 부족이 지속되는 양상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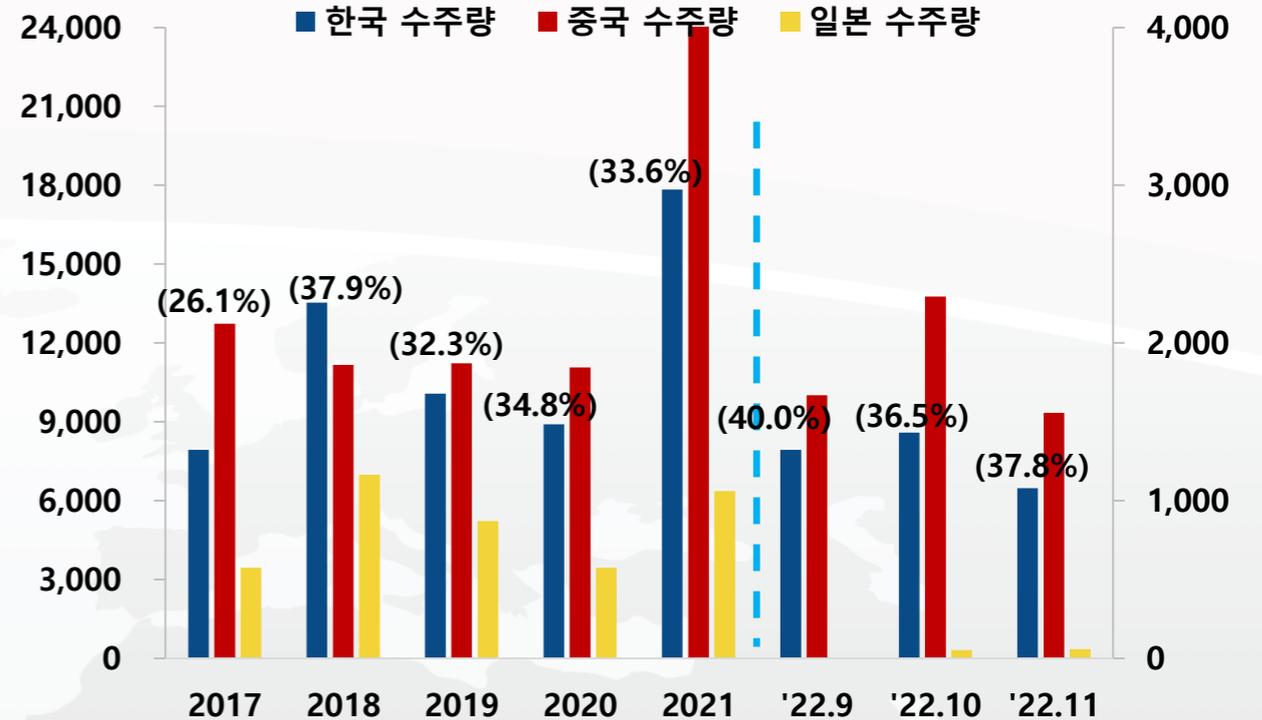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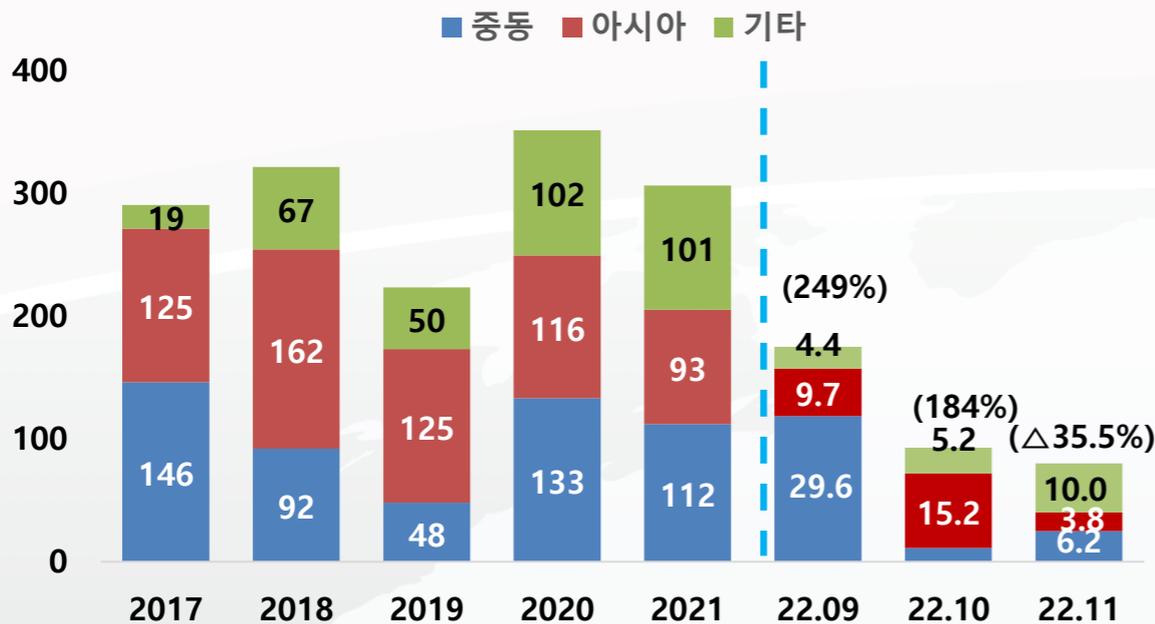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11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35.5% 감소한 20.0억 달러

- (지역별) 11월 수주액은 중동 6.2억 달러, 아시아 3.8억 달러, 북미 5.8억 달러, 아프리카 1.8억 달러 순
 - 디엘이엔씨는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USGC-2 고밀도폴리에틸렌 EPC를 수주했으며,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를 3.8억 달러에 수주
- (공종별) 플랜트 11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169%), 토목 1.4억 달러(△94.1%), 건축 3.3억 달러(△74.6%) 기록
- 11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5.6% 증가한 268억 달러이며, 아시아 수주가 110억 달러로 전체의 41%를 차지하고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0.7% 증가
 - 글로벌 금리인상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,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올해 수주 예상치 32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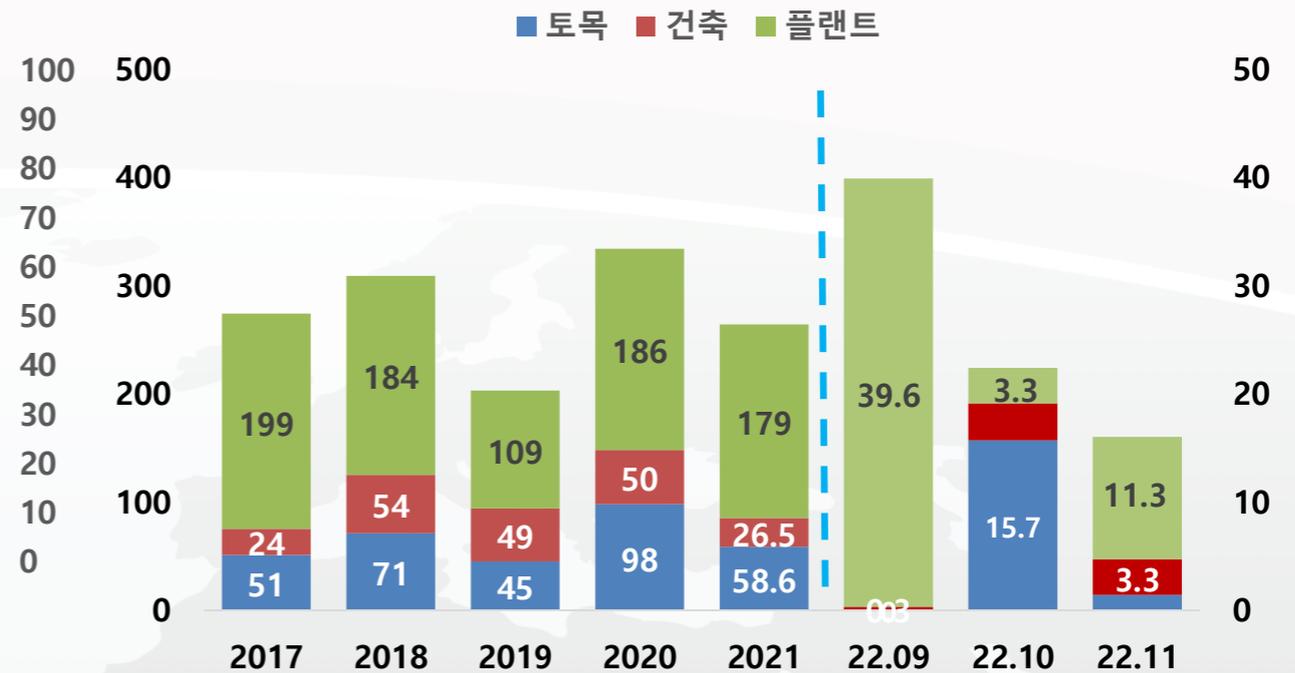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 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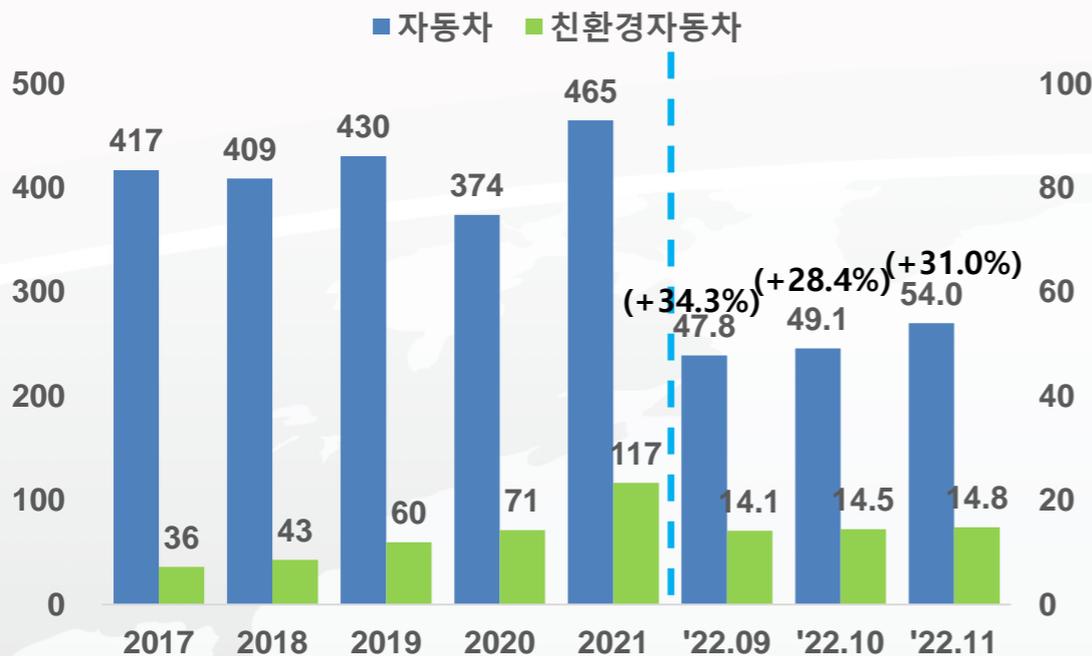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1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54.0억 달러, 18.6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1.0% 증가한 54.0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20.3% 증가한 14.8억 달러 기록**
 - 반도체 공급난 개선에 따른 생산량 확대로 자동차 수출 대수는 25.0%, 수출액은 31.0% 증가하며 월 최고 실적 달성
 -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수출호조로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.3% 증가한 14.8억 달러로 월 최고 실적 달성
 -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1년 11월) 30.0% → ('22년 09월) 29.6% → ('22년 10월) 29.4% → ('22년 11월) 27.5%
 -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2년 11월 대수 기준) : 하이브리드(48.1%), 전기차(44.6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7.2%), 수소전기차(0.1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.8% 증가한 18.6억 달러**
 - 자동차 부품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0.8% 증가
 -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2년 11월) : 북미(32.3%), 아시아(28.0%), 유럽(22.2%), 중남미(13.5%), 중동(3.3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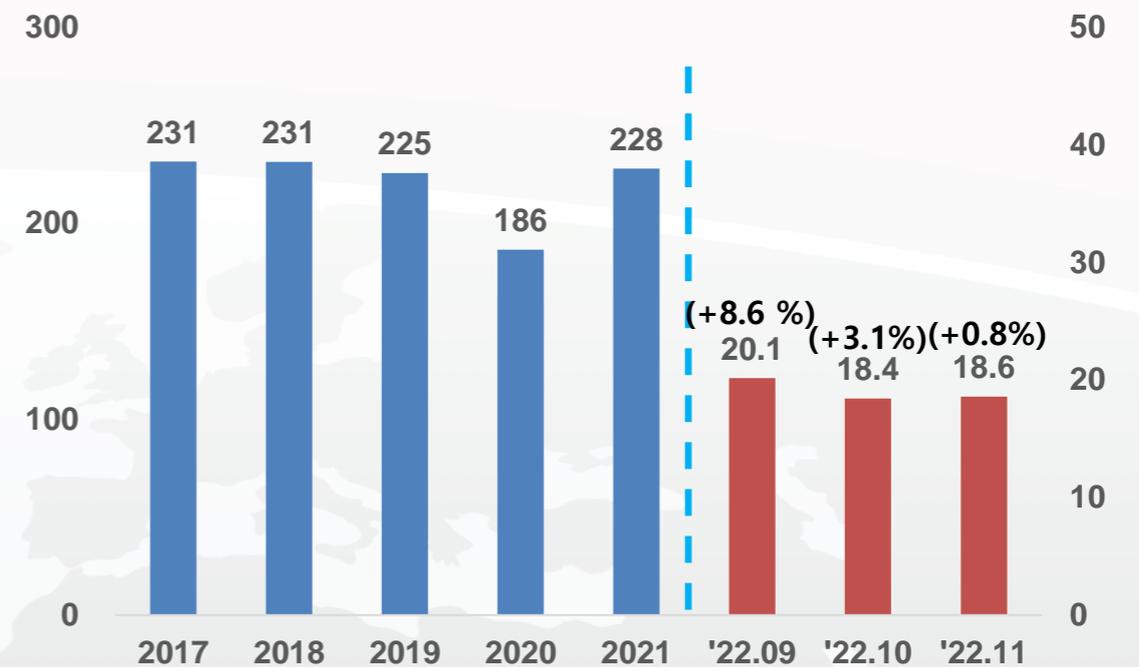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11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$\Delta 28.4\%$, $\Delta 17.3\%$ 기록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.4% 감소한 86.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, D램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9.7% 감소한 38.4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1.10~12)3.71 → ('22.1~4)3.41 → (5~6)3.35 → (8~9)2.85 → (10~11)2.21($\Delta 40\%$, 전년동월비) (트렌드포스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.8% 증가한 42.5억 달러 기록하며 메모리반도체 수출을 추월

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 증가한 32.5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% 감소한 9.3억 달러 기록

*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)'87.9 → ('22.1)89.0 → (4)89.9 → (7)91.2 → (8)90.7 → (10)96.8 → (11)90.4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7.3% 감소한 20.1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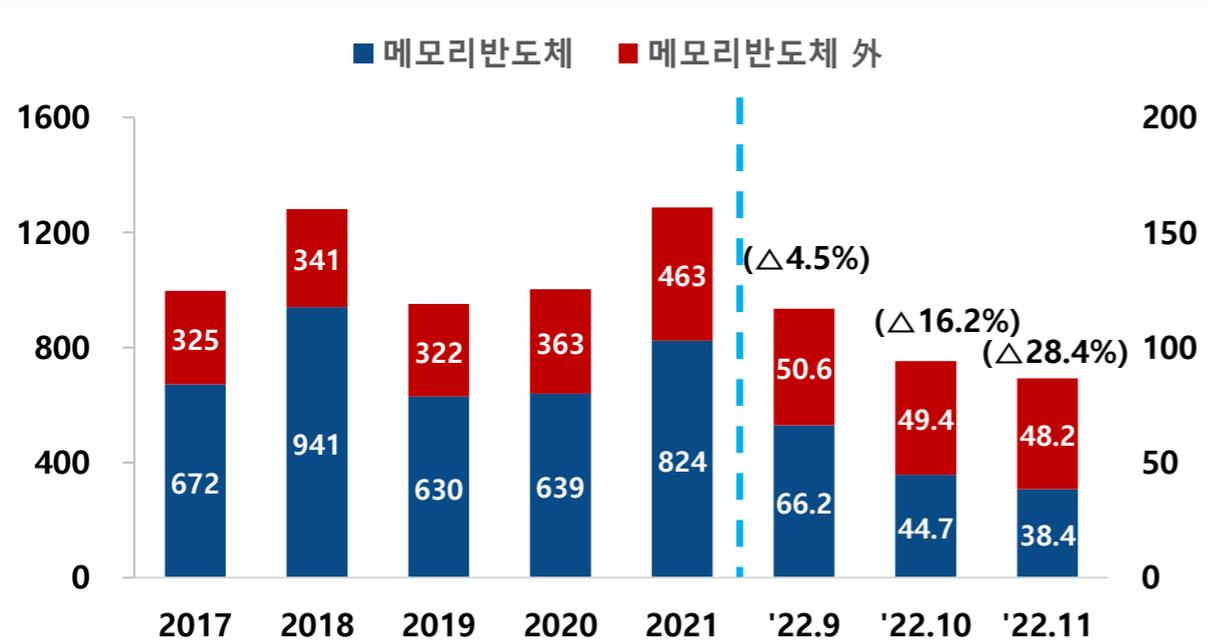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.6% 감소한 14.1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1)50.2 → ('22.1)50.6 → (4)52.1 → (7)53.9 → (8)54.4 → (9)55.6 → (10)57.0 → (11)54.6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구조조정,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3.5% 감소한 3.6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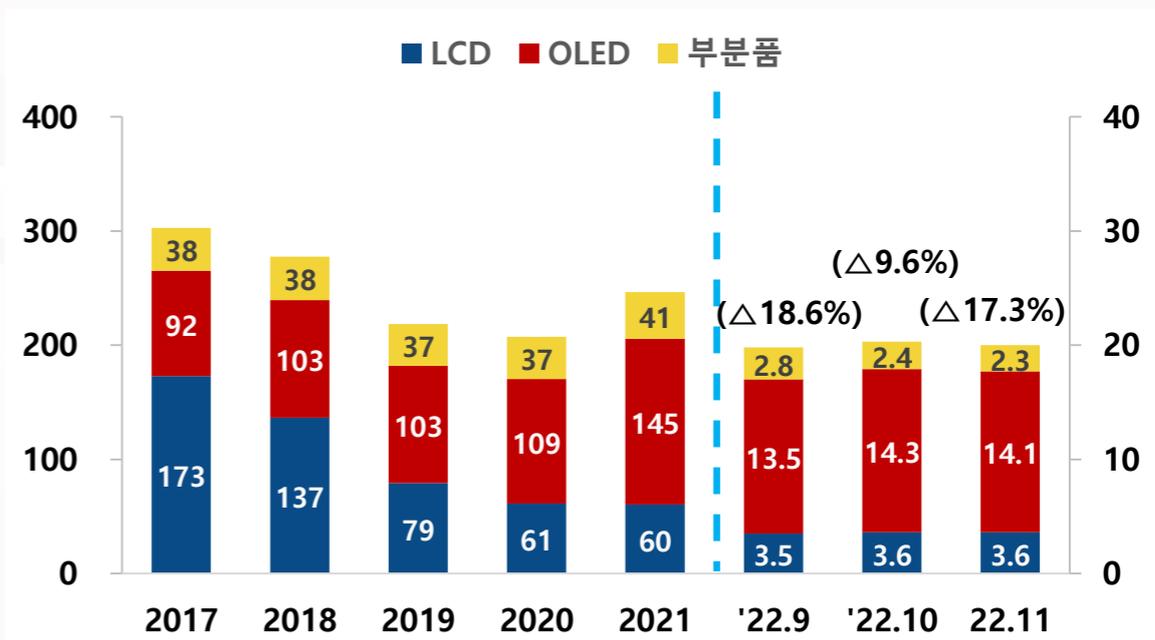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휴대폰·통신장비

11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.2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28.5% 감소

•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 수출 감소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6.2% 감소한 13.8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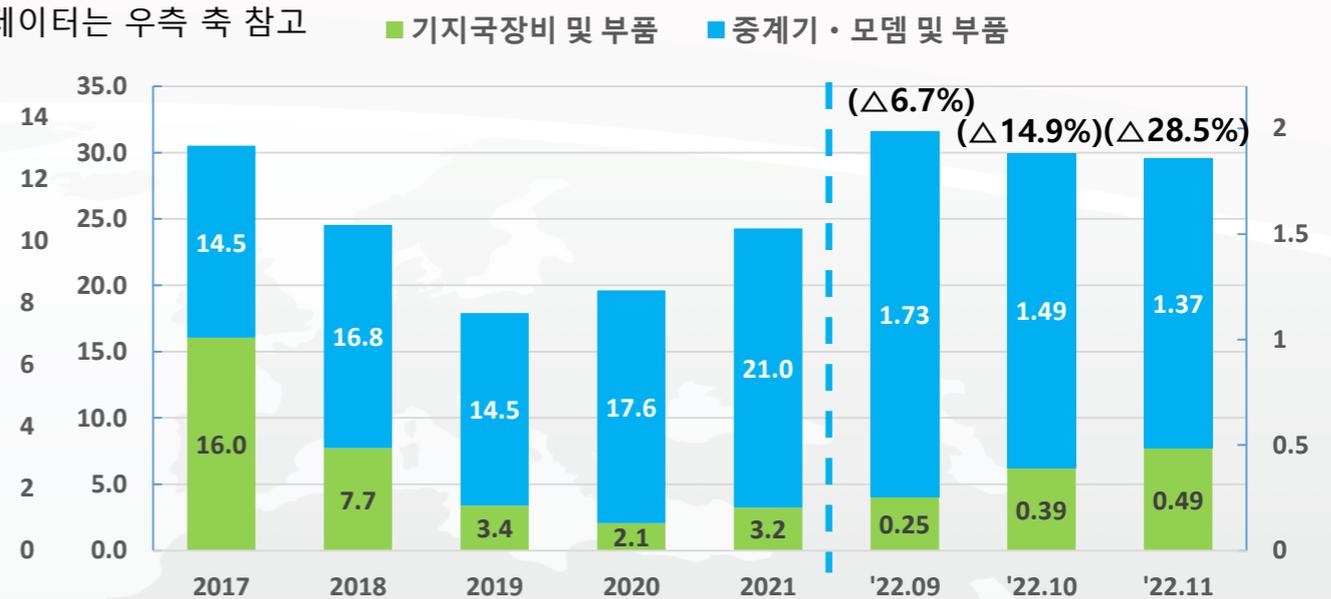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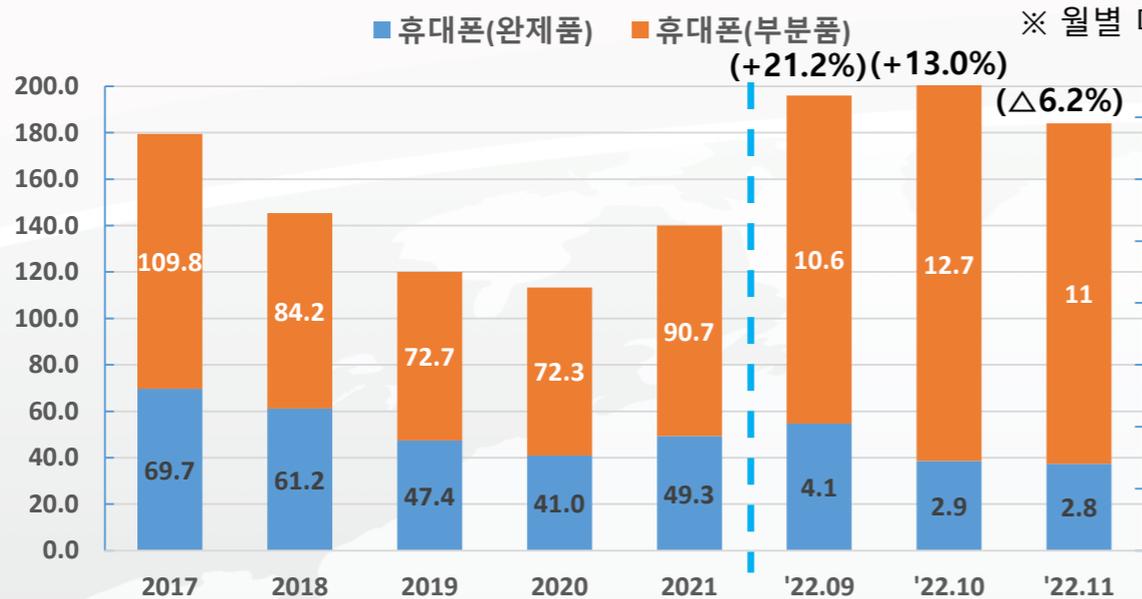
- (완제품)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ICT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(△ 34.5%)한 2.8억 달러 기록
*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수요는 비교적 견조: 오스트리아(0.55억 달러, 전년동월 대비 +99.4%), 캐나다(0.39억 달러, +486.5%)
- (부분품) 중국의 카메라 모듈 등 휴대폰 부분품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5.5% 증가한 11억 달러 기록
*최근 對중국 카메라 모듈 수출액 추이: 1.6억 달러(7월) → 5.3억 달러(8월) → 7.4억 달러(9월) → 8.7억 달러(10월) → 7.6억 달러(11월)

• 통신장비* 수출은 글로벌 ICT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28.5% 감소한 1.9억 달러 기록

- *12월부터 통신장비 부분품(HS 8517792000, 8517793000)을 추가하여 집계
- (기지국 장비) 기지국 장비 수출은 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 대비 21.7% 감소한 0.49억 달러 기록
*최근 3개월 기지국 장비 부품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: 9월(0.24억 달러 +135.8%), 10월 (0.38억 달러, +14.3%), 11월 (0.47억 달러, △21.1%)
- (중계기·모뎀) 중계기·모뎀 수출은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(△44.5%)하며 전년동월 대비 30.6% 감소한 1.37억 달러 기록
*권역별 중계기·모뎀 부품 수출액(11월) : 아시아(0.34억 달러, 전년동월 대비 △49.5%), 북미(0.22억 달러, △27.5%), 유럽(0.20억 달러, △32.4%)

휴대폰 수출액 (억 달러)

통신장비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